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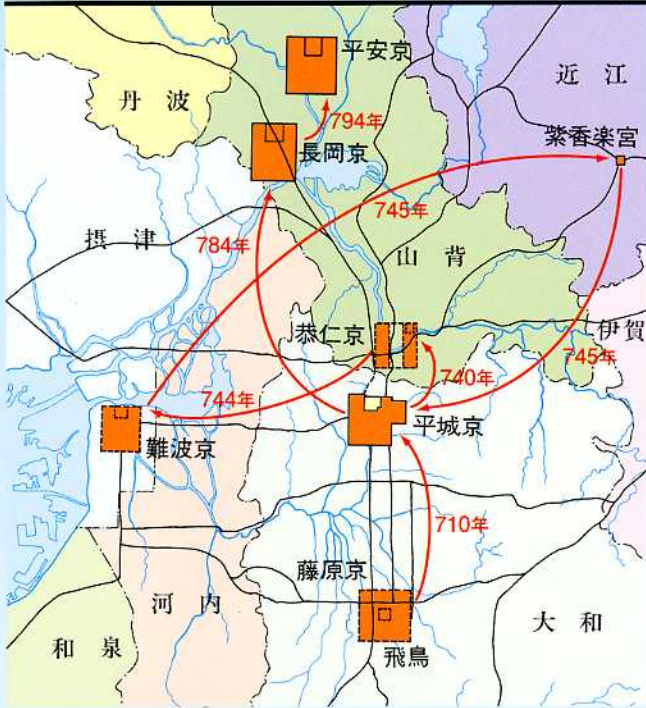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世界文化遺產

# 平城宮跡



# 平城京과 平城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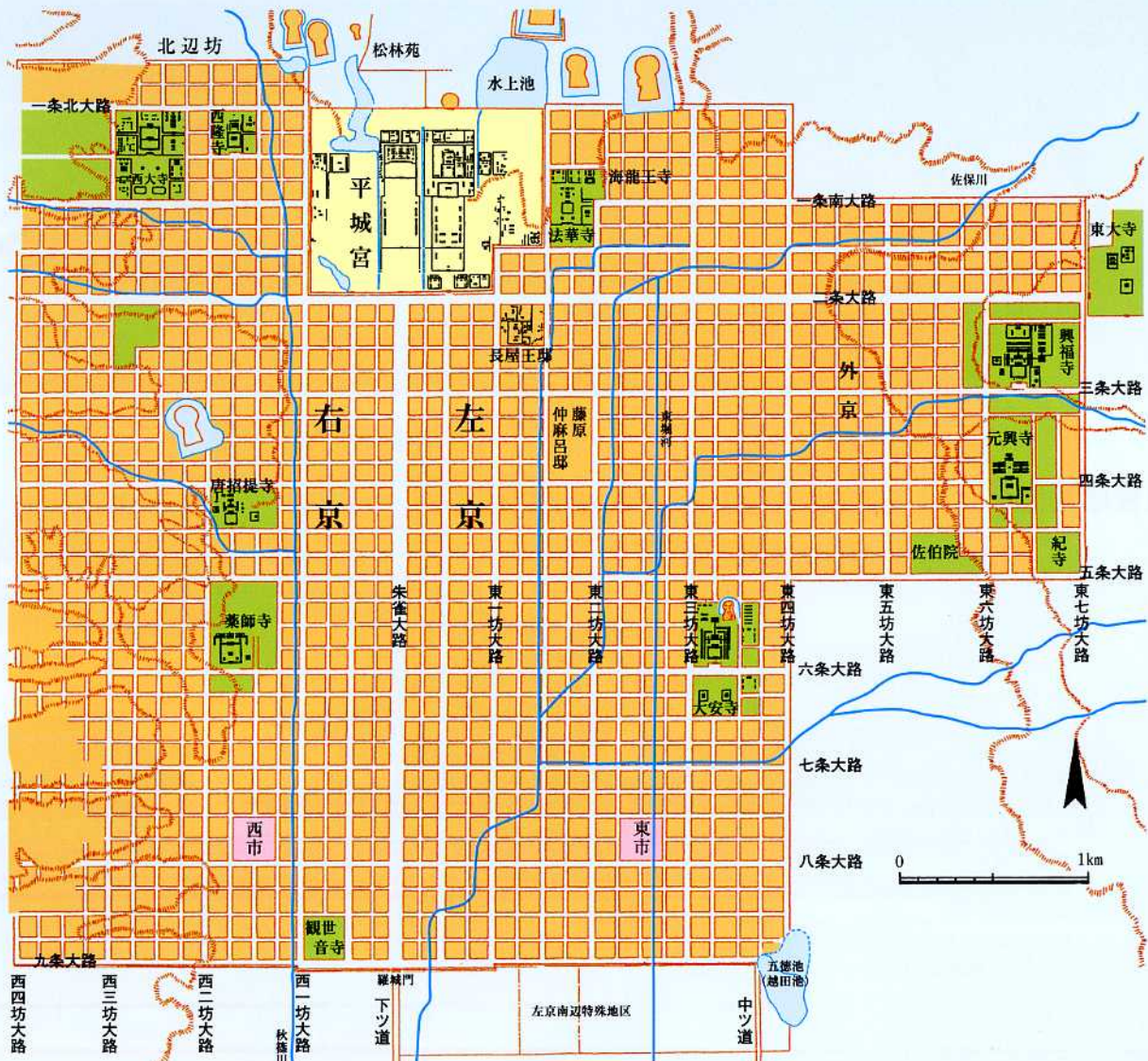
옮겨지는 도읍지

## 平城京

和銅 3(710), 奈良분지의 北端에 세워진 平城京(헤이조우쿄우)이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되었다. 元明天皇(겐메이텐노우)이 율령제(律令制)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펼칠 중심지로써 飛鳥(아스카)와 가까운 藤原京(후지와라쿄우)에서 도읍지를 옮긴 것이다. 중국 당나라의 長安城을 본보기로 도읍지를 세운 것은 당시 동아시아 안에서 국가의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었다.

그 후, 聖武天皇(쇼우무텐노우)은 740년부터 745년에 걸쳐 여러 곳으로 도읍지를 옮겼는데 745년에는 또다시 平城京을 도읍지로 삼았다. 그리고, 長岡京(나가오카쿄우)으로 도읍지가 옮겨진 784년까지는 奈良가 도읍지로써 번영하였는데 이 시기를 奈良時代(나라지다이)라고 한다.

平城京의 중심거리는 도읍지의 南門인 羅城門(라쇼우문)에서 북쪽으로 쭉 뻗은 폭이 약 75m의 朱雀大路(스자쿠오오지)이다. 朱雀大路를 끼고 서쪽을 右京, 동쪽을 左京이라고 하는데 左京의 북편은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平城京은 크고 작은 직선도로에 의해 바둑판 모양으로 整列하게 구획된 宅地(宅地)로 나뉘어져 있다. 平城京의 주민은 4~5만 명으로도, 10만 명으로도 전해지지만 天皇, 皇族과 귀족은 극소수인 백 수십여 명 정도로 대다수는 하급관리와 일반서민이었다.



平城宮의 條坊



## 平城宮

平城京·朱雀大路의 北端에는 朱雀門(스자쿠문)이 우뚝 솟아있다. 주작문을 지나면 동서와 남북이 거의 1Km 가량의 평성궁(헤이조쿄우)이다. 平城宮의 주위에는 커다란 담을 돌리고 朱雀門을 비롯한 12개의 문이 있다.

평성궁의 내부는 몇 개로 구획되어 있다. 정치와 국가적 의식의 공간인 大極殿(다이고쿠덴), 朝堂院(초우도우인), 天皇의 거처인 內裏(다이리), 관청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던 曹司(소우시), 연회를 베풀던 庭園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의식의 공간은 도읍지가 잠시 옮겨져 간 시기를 경계로 奈良時代의 前半과 後半에 큰 변화가 있었다. 奈良時代의 前半에는 朱雀門의 정북쪽에 있던 大極殿(통칭 第1次大極殿)이 奈良時代 後半이 되면 동쪽 구획에 새롭게 지어진다(통칭 第2次大極殿). 이와는 달리 內裏는 奈良時代 全般에 걸쳐 같은 장소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40년 이상에 이르는 발굴조사로 알게 된 것이다. 특히 정방형(正方形)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왔던 平城宮이 실제로는 동쪽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점과 그 모서리 부분에서 奈良時代의 庭園을 발견한 점 등은 발굴조사의 커다란 성과 중 하나라 하겠다.



奈良(나라)시대 전반(위)과 후반(아래)의 平城宮



복원된 朱雀門. 朱雀大路를 향해 열리는 平城宮의 正門. 정월 초하루와 외국사절의 송영(送迎) 의식이 치루어졌다. 이외에도 天皇이 도읍지의 남녀가 모여 하던 사랑노래의 합가(合歌)를 관전하는 이벤트 역시 이곳에서 펼쳐졌다.



# 平城宮 안을 살펴보면



**第1次 大極殿院(다이고쿠덴인) · 東樓(히가시로우)의 遺構**  
 堀立柱(구덩이만을 파서 세운 기둥)과 礎石(기초석)을 혼용한 독특한 건물터로 柱穴(기둥구멍)이 크며 樓閣建築으로 생각된다. 平城宮에서 가장 큰 기둥(지름 약 75cm)이 출토되었다.

**兵部省(호우부쇼우)의 整備** 朱武官人事를 담당했던 관청. 현대의 도로가 유구의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으나 건물의 기둥과 벽을 약 1m 정도 세우는 반입체복원(半立體復原)이라는 방법으로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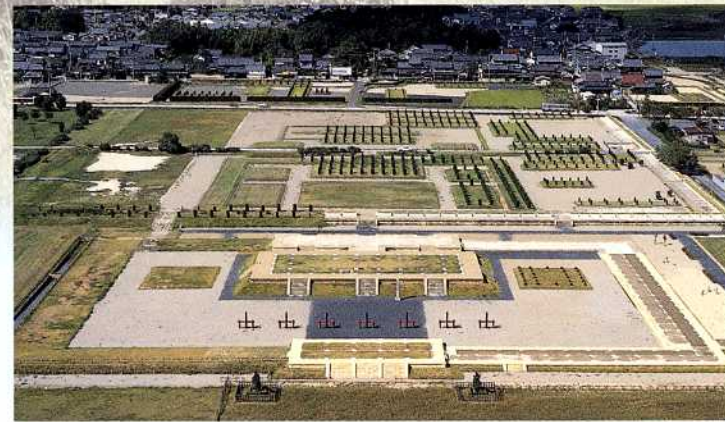
**발굴된 東院庭園** 平城宮 동남쪽 모서리에 서 발굴된 奈良時代의 庭園터. 연못주위의 건물과 다리 외에도 등글고 작은 돌을 깔아 덮은 연못 바닥과 높이 1.2m의 立石을 멋스럽게 배치한 築山石組(인공산의 암석배치) 등이 발견되었다.

**復元된 東院庭園** 天皇과 皇族의 연회장을 재현. 건물은 유구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정원은 石組(암석배치)를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정비하였다.

**第2次 大極殿의 遺構** [大極(다이고쿠)의 잔디]라고 불리는 토담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明治(메이지)이후 大極殿터로 생각되어 왔다. 이 곳은 1978년에 발굴되었다.



**第2次 大極殿과 內裏의 整備** 第2次 大極殿과 그 주변에 있는 礎石건물은 기단을 복원하고, 內裏(다이리)의 堀立柱건물은 원주상으로 다들은 회양목으로 기둥을 표시하였다.



**造酒司의 우물** 天皇과 권리를 위한 술을 담그던 관청에 있던 우물로 그 위에는 육각형의 덧집이 세워졌다. 한 개의 기둥뿌리와 다섯 개의 기둥구멍을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 平城宮略年表

694년(特統 8)	藤原京으로 천도
701년(大寶 1)	大寶을령을 제정
707년(慶雲 4)	元明天皇(女帝)이 즉위
708년(和銅 3)	平城京으로 천도
715년(靈龜 1)	元正天皇(女帝)이 즉위
724년(神龜 1)	聖武天皇이 즉위
729년(天平 1)	長屋王의 變
740년(天平12)	藤原廣嗣의 亂을 계기로 恭仁宮으로 천도
742년(天平14)	紫香樂宮을 만능
744년(天平16)	難波宮을 도읍으로 함
745년(天平17)	紫香樂宮을 도읍으로 함 平城京으로 도읍을 되돌림
749년(天平勝寶 1)	孝謙天皇(女帝)이 즉위
752년(天平勝寶 4)	東大寺에서 大佛의 開眼供養이 치루어짐
758년(天平寶字 2)	淳仁天皇이 즉위
764년(天平寶字 8)	藤原仲麻呂의 亂. 淳仁天皇에서 교체된 孝謙上皇이 다시 稱徳天皇(女帝)로 즉위
770년(寶龜 1)	天智天皇의 손자인 光仁天皇이 즉위
781년(天應 1)	桓武天皇이 즉위
784년(延暦 3)	長岡京으로 천도
810년(弘仁 1)	平城上皇, 平城천도를 계획하나 실패함(藥子の 亂)
864년(貞觀 6)	이 무렵 平城舊京의 도로는 논밭이 됨



**第1次 大極殿院의 1/100 모형**  
 (1993년 제작)  
 大極殿은 天皇의 즉위, 정월 초하루의 朝賀(초우가) 등 국가의 의식이 치루어 질 때 天皇의 자리가 놓여 진 건물이다.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면에는 重層의 閣門(코우문)이 열리고 그 양측에는 東樓, 西樓로 불리는 樓閣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하는 그 앞에 마련된 광장에 늘어 서서 天皇에게 배례하였다.

※본문 안에 있는 是는 平城京 西隆寺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 장식을 모티프로 한 것입니다. (축척 약 1/4)



# 출토품이 말해주는 사람들의 생활

## 平城宮의 건설

平城宮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造營하는데는 막대한 자재가 필요하였다. 발굴로 기와, 목재, 석재 등 건설에 사용되었던 재료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출토품은 건물의 당시 모습뿐만 아니라 자재의 조달 경로를 추정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 사람들의 생활

天皇을 비롯하여 귀족과 하급관리가 도읍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지방으로 부터 稅(稅) 등으로 운반해 와야만 했다. 출토품 중에는 토기 등과 같이 일본열도 각지에서 가지고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출토되는 火文문서인 木簡(木簡)은 어느 지방에서 무엇이 도읍지로 운반되었는지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귀면와(鬼瓦)** 지방의 용마루(또는 추녀)의 끝부분은 덮는 기와로 잠귀를 짓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獸面 외에도 龍鳳의 문양을 본뜬 것도 있다.



①伊豆國에서 운반된 가다랑어의 화물문서

②長屋王의 저택으로 운반된 전복의 화물문서

③造酒司가 직원에게 보낸 호출장

여러 가지 木簡



**식기와 부엌용품** 젓가락과 손가락, 대접과 접시 등의 식기, 단지, 향아리 등의 저장용구, 주걱 등의 炊事用具가 출토되었다.



## 관리의 업무

율령제의 토대로 太政官(다이쥬우칸) 이하의 수많은 관청이 있었다. 관청에서는 현재와 다르없이 서류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었다. 당시는 나무로 된 문서(木簡)에 서류와 장부를 기록해 두는 경우도 많아 발굴조사시 이러한 木簡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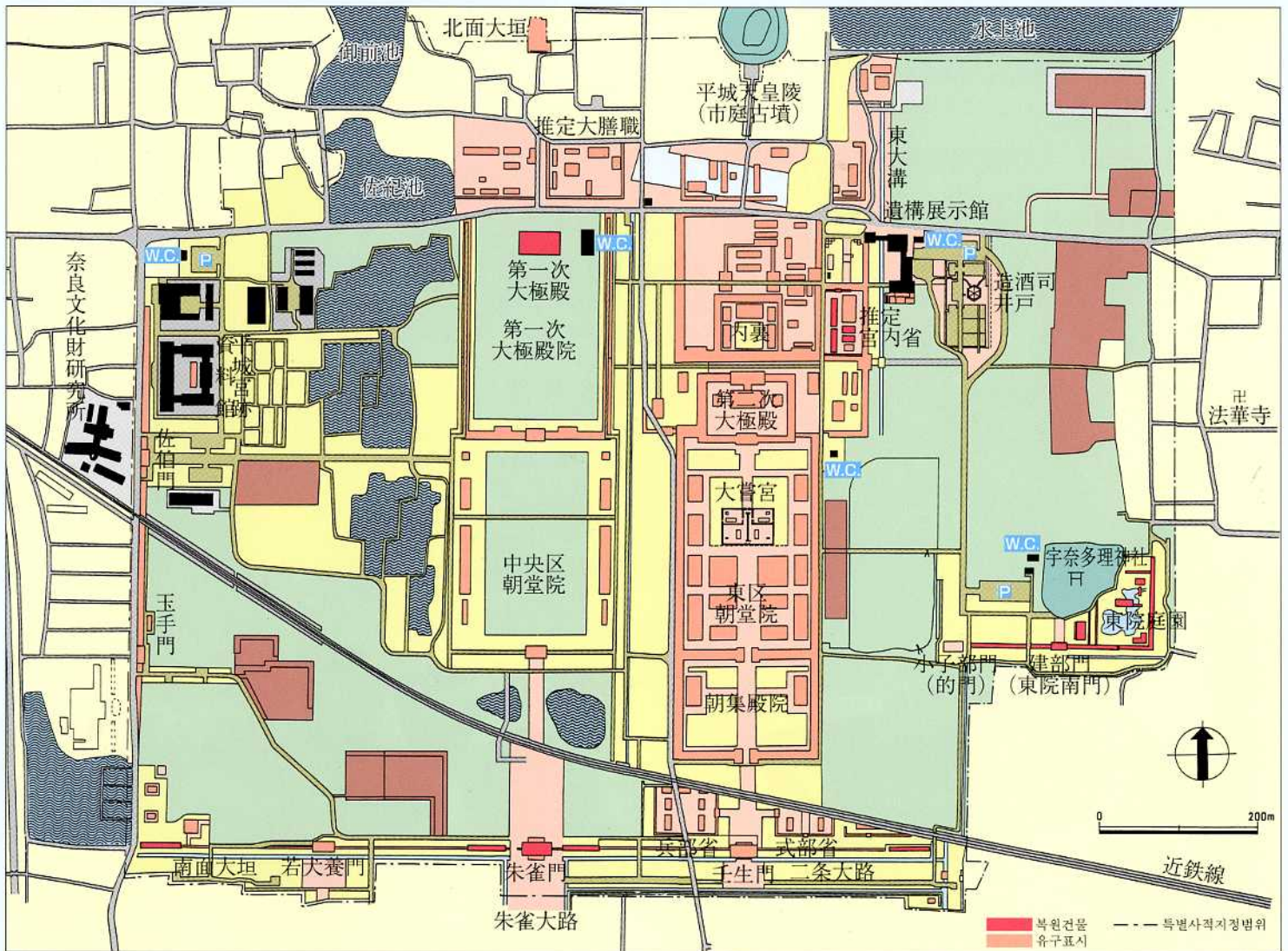




**平城宮터 자료관**  
발굴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과 복원모형을 전시하여 平城宮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유구 전시관**  
발굴시 드러난 遺構를 그대로 볼 수 있으며 第1次大極殿과 内裏의 복원모형도 감상할 수 있다.



世界文化遺産 特別史跡 平城宮跡

**나라문화재연구소 시설 안내**

- 平城宮 資料관 近鐵 大和 西大寺역에서 도보 10분
- 유구 전시관 JR奈良역, 近鐵 奈良역에서 近鐵 大和寺역행 또는 (覆屋, 오오이야) 近鐵 大和 西大寺역에서 JR奈良역 方面 버스를 타고 [平城宮跡]버스정류장에 하차하면 바로.
- 東院 庭園 [平城宮跡]버스정류장에 하차, 도보 10분
- 朱雀門 近鐵 大和 西大寺역에서 도보 20분. [平城宮跡]버스정류장에 하차, 도보 20분. JR奈良역, 近鐵 奈良역 方面에서 [二條大路南四丁目]버스 정류장에 하차, 도보 3분.

**전체시설**

- 무료입장
- 월요일(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는 휴관
- 개관시간 9:00~16:30(입장은 16:00까지)



世界文化遺産 特別史跡 平城宮跡

발행 一刷1999년 3월  
四刷2010년 4월

630-8577 奈良市 二條町 2-9-1

独立行政法人 国立文化財機構 奈良文化財研究所

전화 0742-30-6753 팩스 0742-30-675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bunken.jp>